



Prasenjit Duara, *The Crisis of Global Modernity: Asian Traditions and a Sustainable Future*
(20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영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어느 역사학자의 글로벌 모더니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태학적 제안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아시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두아라 교수가 2015년에 『글로벌 모더니티의 위기: 아시아의 전통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의 신간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오랜 기간 학술 활동의 연장선이자 아시아의 대학으로 주요 활동 무대를 옮긴 기간 동안의 연구를 담아 낸 주요 결과물이다. 또한 두아라 교수의 이번 책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연작 주제인 ‘아시안 커넥션(Asian Connections)’으로 출판하는 첫 저작물이기도 하다. 역사학 혹은 지역학에서 점차 특정한 국가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탈국가적 혹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가 더욱 주목을 받고 필요해지는 현 시점의 학계 동향을 잘 반영하고, 또한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 주제이자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책의 소개에서 밝히고 있듯이 두아라 교수의 새 책은 그의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확장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새 지평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연구에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사를 중심으로 역사 서술을 하면서 국가 혹은 민족국가 중심의 사고 및 실천에 대하여 강한 경계를 하였는데, 이 연구서에서 연구의 대상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의 철학적이고 이

론적인 근거 그리고 주요 분석 대상은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찾았지만, 그의 연구 문제와 제안하는 이론적 대안은 단순히 아시아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매우 두터운 서술을 하는 두아라 교수의 글쓰기 방식은 읽는 이들에게 이중의 과제를 부여한다. 우선 매우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리의 과감하고 계속적인 연쇄 방식은 읽는 이가 충분한 배경 지식과 이론적 이해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단어를 새롭게 정의 내리거나 이론적인 신조어를 많이 제안하는데, 독자가 기존의 개념과 비교하면서 두아라 교수의 새로운 정의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평을 맡은 본인 역시 매우 흥미롭게, 동시에 곤란함을 겪으며 그의 논지를 따라가야 했다.

이번 서평은 지난 2015년 1월 26일 두아라 교수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그의 신작 저서에 대한 서평회의 토론을 맡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동시에 저명한 역사 연구자인 두아라 교수의 최신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서평은 문화연구와 동아시아 연구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서평자로서 두아라 교수의 신작에 대한 몇 가지 단상들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글로벌 모더니티의 위기』를 통해서 글로벌 모더니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두아라 교수는 글로벌 모더니티의 결과물로 발생한 가장 중요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사고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자원을 아시아의 전통적인 사고, 특히 중국과 인도의 철학 및 종교로부터 찾는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던 아시아의 전통에 대한 재고찰과 실천을 통하여 유럽 중심의 근대성에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모더니티(sustainable modernity)”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우주적이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두아라 교수의 이번 저서를 충분히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앞으로 독자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위하여 서평자가 주목한 주요 공헌과 한계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서평자가 두아라 교수 신작의 주요 공헌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두아라 교수는 『글로벌 모더니티의 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사회학(historical sociology)의 관점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석한다. 역사학에서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와 같이 학제 간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아라 교수는 신작을 통해 역사사회학의 선두적인 역할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의 연구 성과는 더욱 의미 있는데, 그는 아리프 딜릭(Arif Dirlik)과 함께 매우 드물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학문적 시도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특히 두아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역사 및 종교에 대한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미래적 시점에서 함께 고찰하고 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의 위기에서 시작한 그의 문제 의식은 아시아의 전통에서 지혜를 찾고 현재의 다양한 환경 운동과 NGO 단체를 통하여 대안적 실천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 두아라 교수의 이번 연구는 역사와 사회구조를 함께 사유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 고민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두아라 교수는 현재 글로벌 모더니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로 요약하면서 역사와 사회 구조를 연결하고자 한다. 두아라 교수가 지목한 세계적 변화는 첫 번째로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성장, 두 번째로 초월적 권위의 부재, 그리고 세 번째로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글로벌 모더니티의 현재적 특징과 그것으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안을 두아라 교수는 중국과 인도의 오래된 전통, 사교 그리고 종교에서 찾고자 한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유럽에서 기원한 전통적 의미의 근대성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두아라는 두 번째 근대성 혹은 대안적 근대성의 사상적 기원을 아시아로부터 찾으려는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유를 발전시킨다. 아시아의 전통으로부터 현재의 근대성이 초래한 위기 - 생태학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 를 찾으려는 그의 시도는 동아시아의 논의에서 최근 자주 인용되는 요시미의 “방법으로서 아시아(Asia as method)”라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사유의 기반은 상이하지만, 이와 같이 두아라는 중국과 인도의 다양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과 사유들로부터 현재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논리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로부터 유래한 지혜, 철학 그리고 종교적 사유를 현재의 아시아 사회와 문제점에 구체적으로 전유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두아라 교수는 아시아연구소의 서평

회에서 구체적인 연구(case studies)는 앞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로 두아라 교수는 기존의 근대화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모더니티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두 가지 개념, 즉 “순환성(circulation)”과 “초월성(transcendence)”을 발전시킨다. 두 가지 개념은 책 전반에 걸쳐 역사성과 근대성과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변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근대성을 상상하는 게 핵심이다. 앞선 연구들에 이어서 두아라 교수는 순환성과 초월성의 개념을 통해서 민족주의적 사고 및 구조의 극복을 시도한다. 현재 근대성의 패러다임을 생성하고 공고히 한 지배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서의 구조로 민족주의 혹은 민족중심적 근대화 모델을 지적하면서 순환적이고 연결될 역사성과 초월적이며 보편론적인 도덕성(이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전히 민족주의, 발전주의, 그리고 이에 기초한 근대화 담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두아라가 제안하는 이론과 주장은 매우 유효하다. 개인적으로 그가 제안하는 두 가지 개념 가운데 “초월성” 논의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 넘고 동시에 유토피아적이고 도덕적 권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무정부주의(anarchism)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때로는 난해한 그의 개념 설명 방식은 순환성과 초월성의 개념이 현재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독자가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논의한 두아라 교수의 주요 공헌과 함께 서평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 가지 논의하고자 하는 지점은 두아라 교수의 책이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적용과 실천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주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생각들이다.

첫 번째로 두아라 교수의 글로벌 모더니티의 분석에는 세계적 변화의 중심이 된 미국 그리고 태평양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이다. 그는 현재의 전 세계적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간의 역사적 변동을 고찰한다(관찰의 결과로 지목한 세 가지 변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시아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지목한 그의 통찰과 분석 속에는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 권력의 중심 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서평회에서 그가 밝혔듯이 모든 연구를 한 권의 책에서 다룰 수 없지만, 그의 책이 유럽

중심의 근대화 모델을 성찰하면서 아시아의 부상에 주목한다면 미국의 세계 권력으로서의 부상과 그것의 결과물로서 근대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미국의 세계 권력화 그리고 아시아의 성장의 결과로 더 이상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에서 주요 권력 관계가 발생하고 다양한 이동과 세계적 관계 형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현재의 글로벌 모더니티를 논의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부차적으로 한국 및 아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연구에도 미국이 중심이 되고, 그 결과로 세계 지식 생산 및 위계적 지식 생산의 구조를 고착화한 현상에 대한 논의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성장과 아시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유럽 중심의 근대화 과정의 실패로서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아시아적 전통, 철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논의가 갖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사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의 지점은 두아라 교수가 대안적 근대성을 모색하면서 탈근대성 이론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 이유를 두아라 교수는 “다중적 근대성에 대한 이론적 지지자들은 현재의 민족과 사람들을 유럽 문명식 모델과 함께 다시 한 번 전근대의 시기로 추정하여 사고”(117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평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근대성에 대한 대안을 대안적 혹은 다중적 근대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를 반복하면서, 과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현재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탈근대성 논의들 가운데 대안적 근대성 논의 등은 여전히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왔고 또한 타당하다. 다시 말해 근대와 탈근대를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은 이분법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서구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적 오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두아라의 해석은 탈근대성 이론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만을 고려한 채 다양한 가능성과 사유의 흐름들을 단순화시킨다는 우려를 낳는다. 남미 연구자들이 식민과 근대의 필연불가성, 특히 식민이 근대의 어두운 그늘임을 논증하면서 탈식민적 지식의 생산을 추구하는 연구들은 유럽 중심주의로 회귀하지 않는 이론적 사유의 예이다. 탈식민 논의를 거절한 두아라는 아시아의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전 지구적 근대성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다(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서 아시아”의 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유래된 전통으로부터 대안적 논의를 시도한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유럽과 아시아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거나 서양 중심주의를 극복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물론 두아라 교수의 논의가 다시 서양 중심주의로 회귀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이론적 자원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론(여기에서는 아시아의 철학, 사상, 그리고 종교)가 현재 아시아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성찰과 실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두아라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다양한 NGO 단체들의 활동과 지역 조직체인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예로부터 찾는다. NGO 운동 가운데 인도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환경 운동 단체들의 활동 및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두아라가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 아시아에서 NGO 및 환경 운동 단체 그리고 참가자들이 숫자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NGO의 개수, 참가자, 활동 현황의 증가가 중국 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인들의 정서적 구조에 의미 있는 변동을 의미하는지는 보증하기 어렵다. 서평자의 시각에는 여전히 AESAN은 민족-국가의 대표들이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역적 기구이고, 다국적 기업 및 세계 열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기존의 EU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직이다. ASEAN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으로 ASEAN+3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모더니티의 위기』에서 서술된 논의는 ASEAN이 여전히 경제 중심의 단체이고, 국가 대표 및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통한 사유와 활동 방식, 세계화와 탈냉전의 시기에도 여전히 국가주의적이고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된 동아시아 정부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사유의 도구 및 공간이다. 두아라 교수의 논의는 ASEAN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에게 대안적 근대성을 사고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는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케 한다.

두아라 교수는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서평회에서 2015년 말에는 다시 미국의 듀크 대학(Duke University)으로 이동하여 계속 학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7년간 두아라 교수가 경험한 아시아 대학에서의 경험과 교류가

더 많은 탈국가적 아시아 연구 그리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탈근대 연구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5년 2월 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5일

